

광양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화

소재(Materal)전문과학관, 상상놀이터 전시물 제작·설치 착수보고 및 자문위원회 개최



광양시는 지난 10일 정인화 시장의 주재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 광양 소재(Materal)전문과학관(이하 과학관) 및 구부산권역 관광거점(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이하 상상놀이터)에 대한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착수보고회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실현과

'부족한 관광자원 개발' 일환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과 어린이 놀이·체험·교육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하 테마파크)으로 추진하고 있다.

테마파크는 ▲과학관 ▲상상놀이터 ▲숲속 야영장 ▲스포츠클라이밍장 ▲통합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이며, 총 1348억 원

(국비 229, 도비 155, 시비 964)을 확보해 지난 1월 숲속야영장 조성을 착수, 2026년까지 단계별로 완료할 예정이다.

보고회 대상 사업인 과학관은 건축 연면적 7010㎡에 사업비 400억 원으로 건축공사 200억 원, 전시물 112억 원, 기타 88억 원이다. 산업도시로 특화된 시의 특성을 반영해 우리나라 최초 유일의 소재(Materal)분야 전문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실내 상상놀이터는 건축 연면적 2820㎡에 사업비 195억 원으로 건축공사비 97억 원, 전시물 63억 원, 기타 35억 원으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광양만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되고 독특한 콘텐츠 개발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를 배려한 공간조성 ▲운영인력과 운영비를 고려한 콘텐츠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체계적 홍보 필요 등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됐다.

오승택 아동전화도시과장은 "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빠른 시일 내 검토해 전시콘텐츠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특색있는 콘텐츠 구성과 효율적인 공간배치 등 건축 설계사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해 내실 있는 건축과 전시 설계를 통해 운영 시 시설물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과학관과 상상놀이터는 광양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교육·놀이·관광·문화 복합콘텐츠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향후 운영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구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재과학에 대한 콘텐츠 이해도 조사와 전시물 인식 조사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족 단위의 놀이 체험과 상상놀이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광양=김현근기자



순천농협, 로컬 가공식품 판매 활성화에 총력

"가공식품 홍보·판매활성화에 최선"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제)은 최근 본점 중회의실에서 순천지역 농식품가공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식품가공품 생산 농가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의견을 듣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따라서 순천시청 농식품가공품(팁장 정동일)과 사회적경제팀(팁장 정연숙),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센터장 선복섭), 사회적경제기업 및 가공품 생산농가, 순천농협 김미영 경제상임이사, 파머스마켓 정재수 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로컬 가공식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적경제기업 김영순 대표(에코비엔)는 "농협에 입점을 한 것만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상품 입점과 함께 제품 개발과 홍보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순천시와 농협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산물가공센터영농조합법인 조효성 대표는 "로컬 가공식품을 판매한 20여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농협에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판매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와 농가 대다수는 순천농협의 조합원이다. 농협에서 조합원의 제품을 판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는 다양한 의견을 말했다.

강성제 조합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오늘 전달해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고 순천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로컬 가공식품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3월 한 달간 파머스마켓에 특별 판매대를 마련하고, 홍보와 판매에 주력하여 농가와 사회적경제업체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현장의 의견 수렴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성친화도시' 순천 女리더 발굴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순천시는 여성친화도시 순천을 견인할 차세대 여성리더 발굴 아카데미 교육 수강생을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여성의 사회, 경제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리더십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총 5회차로 구성됐다.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은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교육은 ▲나의 리더십 유형 파악 및 이미지 컨설팅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소통 리더십 ▲직장인과 엄마로서 살아남기 ▲양성평등한 시각으로 여성친화도시 바라보기

▲지역과 인간의 상호 연결성 업사이클링 실천 ▲여성리더와의 만남(여성CEO, 여성정치인)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역 여성 CEO와 여성 정치인 등 각 분야의 리더와의 만남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으로서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열정 많은 여성 활동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해양쓰레기 수거 본격 돌입...37억 투입

주요 관광지·도심 해안가 집중 수거...1만5천여 명 동원

여수시가 올해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나선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광지와 도심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전담 팀 '연안정화팀'을 신설해 연인원 1만5천여 명을 동원하고 3천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폐기물로 분류해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페스티로폼은 시 자체 감용시설을 통한 재사용으로 자원 재활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품격을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고흥군,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응 '박차'

고흥군은 봄철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국·도비 3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9억원을 확보해 올해 1월부터 뚝방 및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가뭄대책 사업을 조기 시행 중이며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주요사업은 ▲점암 방내저수지 등 10개소에 저수지 준설 ▲고흥 유동저수지 등 61지구에 관정개발 ▲도덕 신앙 양수장 등 9개소에 양수

장 설치 ▲뚝방 21개소 준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63개소 정비(용수로, 배수로, 담 진입로 정비) 등 총 160여 지구의 농업기반 정비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한발 앞서 가뭄대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9개소는 인근 하천수 등을 양수해 영농 전까지 저수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삶이 행복한 공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